

아타카마 사막

(칠레)



아타카마 사막은 남아메리카의 칠레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이 쟁며, 화산이 여전히 뭉게뭉게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안데스 산맥의 칠레 쪽, 1600m에 걸쳐 뻗어 있는 사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메마른 지역이다. 하늘은 너무 맑아 천문학자들이 우주 최초의 은하가 보내는 빛을 볼 수 있다.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으로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 곳도 있으며 미생물조차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몇천년전 죽은 동물과 식물들이 부패하지 않고 햇빛에 구워진 채로 남아있다. 달의 계곡은 산페드로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진흙으로 이루어진 여러 형태의 진기한 지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달의 계곡에서는 달에서와 마찬가지로 푸른 생명을 볼 수 없다.

<https://futurecreative.tistory.com/1826>